관음종 죽산 스님 종정 재추대

3월 6일 서울 묘각사서 취임법회 봉행

관음종 제6세 종정 죽산 스님이 제7세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2003년 제6세 종정으로 추대된 후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오던 죽산 스님을 제7세 종정으로 재추대하고,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묘각사(종로구 숭인동) 대불보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청와대불자회 강윤구 회장(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상축 △봉행사 △법좌등단 △법장봉정 △종정스님 법어 △축사 △관음종 합창단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죽산 스님은 1958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범어사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묘각사 홍선 스님에게 보살계를 각각 수계 받았다.

또한 통도사 전문강원(1959년)에서 수학(1959년)하고, 오세암 · 백련암 · 성암사 등에서 안거(1965~1995년)에 적극 동참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용어 없는 불교로 인성교육”

진각종 덕일 정사 ‘육바라밀’ 출판

“어려운 불교용어는 자칫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진각종 종립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덕일 정사(속명 권영택 · 성남 대원심인당 주교 · 사진)가 그동안 심인당과 학교에서 포교활동을 하며 겪은 재미있는 일화를 바탕으로 <마음 밝히는 길-육바라밀>을 출판했다.

특히 정사는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의 육바라밀을 자기확대 · 자기관리 · 자기극복 · 자기향상 · 자기모습 · 자기창조 등으로 표현, 불교용어를 배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한 육바라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어리석은 사자’ ‘토끼와 거북이’ 등의 동화를 통해 풀어냈다.

덕일 정사는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종비장학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마친 후 줄곧 종단 교육계에서 활동했다. 1983년 심인고등학교 정교실장 및 교사를 시작으로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및 불교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정교실장 등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선여자중학교 교장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덕일 정사는 교장소임을 맡은 직후부터 불교정신을 통한 학교경영과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육바라밀과 육자진언을 상징하는 교표(엠블렘)를 완성하고 ‘이타자리(利他自利)를 실천하는 생활인이 되자’는 교육목표와 육바라밀을 접목시켜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

덕일 정사는 “정사가 되기 전인 심우시절부터 교육관련 일을 하면서 육바라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육바라밀은 과학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비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정사는 또 “학생과 일반인들은 불교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있지 않아 육바라밀에 대한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것을 책으로 옮기고, 친숙한 동화를 곁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음 밝히는 길-육바라밀>은 불교 교육자가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제시하는 ‘욕심 없는 삶’ 실천을 위한 생활지침서다.

김진성 기자

어린이 학생회 우리 절이 최고!

천태종 산하 연리회 ·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 지원 활발

종단 수련법회 등을 통한 인재교육불사를 2009년 종단 주요 계획으로 밝힌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어린이 · 학생회 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태종은 전국교원불자연합회와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들의 모임 연리회,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 등을 총무원 산하에 두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하계와 동계 구인사에서 교원불자들의 수련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학생회 및 어린이 지도교사 직능교육’ 등을 통해 교사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체육대회와 법회, 학생회 수련법회 등도 지원한다.

이는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희향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천태종 전국교원불자연합회 조용근 회장(마산 무학여고 교사)은 “연합회 소속 선생님들은 수련법회나 불경공부 등을 통해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있다”며 “부처님 법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쫓는 사람이 늘어나 불법을 통한 인성교육이 절실한 요즘, 이러한 소양공부는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1987년 꿈나무회로 창립, 1988년부터 천태종 어린이들을 지도해온 연리회(회장 정상준)는 종단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4월 19일과 9월 20일 경산 문명고등학교와 이천 장화사에서 각각 남부지역과 중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6~7일에는 구인사에서 어린이 지도교사 하계연수를 진행하고, 10월 24~25일에는 지도교사 단합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상준 연리회장은 “종단에서 진행하는 직능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각 지역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종단에서 발간한 어린이 교육책자 <법화꽃>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종단 법사스님들이 각 사찰을 방문해 법문하는 것도 어린이 포교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회장 오용운)는 천태종 학생회 참여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1995년 창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지역 학생회를 묶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지역별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교무부 상명 스님은 “어린이와 학생들은 불교의 미래와 다름없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태종은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다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자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서울불교문화대학 묘각사서 졸업법회

“보다 발전적인 교육기관이 될터”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 홍파)은 2월 23일 서울 묘각사에서 졸업식을 개최해 승가학과 46명, 불교학과 48명의 졸업생을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불교문화대학(학장 홍파 · 관음종 총무원장)은 2월 23일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2년간의 강의과정을 수료한 승가학과 1기 46명과 6개월의 과정을 마친 불교학과 3기 48명이 졸업했다. 학장 홍파 스님은 “서울불교문화대학은 앞으로 관음종 모든 승려들의 의무교육 기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졸업생들은 16~17일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졸업수련대회를 진행하고 불국사, 석굴암, 대인사, 경주 남산 등을 순례했다.

김진성 기자

태고종 베트남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

베트남 끄엉사에 선남선녀 지원센터 건립

태고종은 2월 23일 베트남 끄엉사에서 베트남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틱 타잉 끄잉 · 혜철 · 틱타잉삼 · 묵원 스님.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국내 최초로 베트남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다.

태고종 총무부장 묵원 스님과 홍보국장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등은 2월 19~24일 베트남 끄엉사를 방문, 베트남불교회 틱타잉삼 부회장, 끄엉사 주지 틱 타잉 끄잉과 함께 23일 ‘문화교류 협정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협정서를 통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 신랑과 베트남 신부의 건전한 만남 및 결혼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우선 끄엉사 경내에 설립(5월 준공예정)될 ‘선남선녀 지원센터’ 건립 불사금을 지원한다. 또한 범패 시연, 양국 스님 교환연수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성사는 2008년 7월부터 베트남 하이즈엉도 끄엉사와 교류를 진행하며 국제결혼을 주선해 왔다.

김진성 기자

금강대생 일본 명문대학원 진출

정상교·원영아씨, 동경대·와세다대 대학원 합격

불교 교리에 입각한 인재불사를 지향해 온 천태종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졸업생 2명이 또다시 해외 유명 대학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금강대는 정상교(불교학전공 · 2008년 2회 졸업)씨와 원영아(일어통역전공 · 2008년 2회 졸업)씨 등 2명이 각각 일본 동경대 대학원과 와세다대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정상교씨는 2008년 동경대 대학원 연구생으로 합격한 후 1년만에 석사과정에 합격했으며, 원영아씨는 2008년부터 일본 나고야대 대학원 연구생 과정을 거치다 이번에 와세다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금강대 성낙승 총장은 “이들 졸업생들에게는 장학위원회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목표한 바 학업을 마치고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난다면, 세계무대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는 3월 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성낙승 총장, 학부생 98명과 대학원생 11명(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황호성 · 김주영 학생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금강대의 빛나는 전통을 수립하겠다”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세계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학도로서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금강대는 소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첫 졸업생부터 미국 조지타운대, 일본 와세다대 등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고, 행정고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등 불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큰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베스트화제작 신간
百超歸藏術 (上)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 신한 010-3813-4443
Tel : 02) 3667-4446 / H.P : 010-3813-444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